

거주의 지속가능성

단독주택 거주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을 중심으로-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면서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주거환경은 자신만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거주민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 쉽고, 함께 살아가면서 형성된 생활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거환경은 단독주택을 비롯한 독립적인 주거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는 반면, 아파트로 대표되는 집합적인 주거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단독주택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편의성 부족, 개별 유지관리 부담, 부족한 주차공간, 취약한 보안성 등으로 거주자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이 매대시 아파트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이것이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문화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유형으로 정착되었고, 2010년 전체 거주가구에서 아파트(47.1%)가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주택(39.6%)을 처음으로 넘어섰다.¹⁾ 이처럼 아파트가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까지 확산되면서 도시경관이 획일화되었고, 내용적으로도 거주

민의 일상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만족할만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우리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각종 문헌과 언론매체에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급위주의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전세난이 촉발되었고,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의 계층간 분화와 상대적 박탈감 등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독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일본 등에서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기존주택 재고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 만들기 운동이 단초가 되어 단독주택지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보전하고 재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²⁾

특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해피하우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1980-2010.

2)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에는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의 지원사업에는 서울시의 서울형 집수리사업, 그린파킹사업, 경기도의 G-하우징 리모델링 등이 있다.

거주의 지속가능성



▲ [그림 1] 길음 뉴타운사업 이전(1998)과 이후(2009)의 도시조직과 주거형태

스'와 서울시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은 행정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이것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발적인 프로젝트 성격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성격의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의 자생적인 거주 지원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에서는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단독주택 거주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단독주택지 재생과 주택관리의 의미

단독주택지 재생에 대한 논의는 아파트 공급위주의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살이를 담고 있는 단독주

택들이 단지형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사라졌고, 주거환경의 연속성이 훼손되었다. 이것은 단독주택지가 서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국토해양부에서 수행한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8.2세, 가구 평균소득은 195.2만원인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8.8세, 가구 평균소득은 306.3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지는 자발적인 주거관리 의욕이 낮아서 물리적 쇠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는 단독주택 기피로 이어져 가구 및 구성원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인한 각종 범죄가 유발되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 쇠퇴로 시작된 단독주택지의 부정적 순환구조로 인해 점차 단독주택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지역의 자생적 커뮤니티를 파괴할 뿐 아니라, 골목경제로 일컫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시에 해체되

거주의 지속가능성



▲ [그림 2] 단독주택지의 다양한 주거 유형(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어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을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의 저렴한 주택들이 중대형 주택으로 대체되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불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감소되어 서민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 확보와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 물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단독주택지 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독주택지 재생은 주거의 ‘다양성’과 ‘장소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언급했듯이 단독주택지에는 단독·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점포겸용주택, 오래된 주택과 새로운 주택, 저렴한주택과 일반주택 등 다양한 거주계층과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유형이 근린단위에서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지 재생은 거주민의 생애주기와 부담능력에 따라 주거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유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적 재생(social renewal)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단독주택지에는 지난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골목길과 마을공동체를 지닌 공간들이 즐비하다. 이곳은 비록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리스의 산토리니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비롯한 세계적 관광지에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보다는 오래된 가로와 낡은 주택을 고치고 지역 특성을 살려 특화한 곳이 많다. 그 속에 녹아 있는 아기자기한 삶의 흔적들이 전 세계의 여행자를 매혹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부는 허물고 일부는 고쳐 가면서 전체의 형상과 내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갈 때 좋은 주거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단독주택지 재생은 개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행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현재 공공의 다양한 단독주택지 재생 사업들도 주민 자력의 주택개량이 병행되어야 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단독주택지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이와 더불어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관리하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주택 관리와 개·보수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으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단독주택 거주 지원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3. 단독주택 거주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1) 해피하우스

해피하우스 사업을 쉽게 이야기하면 단독주택에 아파트의 편리한 관리사무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지의 잠재적 가치인 ‘다양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주거지 관리를 유도하는 지원사업이다. 주택의 물리적 성능개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건강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동네 만들기를 실현하는 녹색커뮤니티 운동기반을 마련

거주의 지속가능성



마포 센터 개소식

관계기관 워크숍

전주 센터 주민간담회

▲ [그림 3] 해피하우스 사업 주요활동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피하우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개별 주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명명된 것이다.

해피하우스 정책은 지난 2008년 12월 발족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주거문화 혁신에 두고 추진한 ‘뉴 하우스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³⁾ 현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0년 2월부터 시범지구로 선정된 전주 덕진구 인후2동(2.2), 대구 서구 평리3동(2.24), 서울 마포구 성산1동(3.11)의 3개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⁴⁾

해피하우스 사업의 주거서비스는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유지보수 서비스이다. 긴급한 하자발생 보수지원과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는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방수, 단열 등 큰 비용이 수반되는 개·보수 작업에 대해서도 해피하우스센터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연결해 줌으로써 이 업체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는 에너지효율개선 서비스이다. 주택의 벽체·창호 등의 단열 성능을 진단하여, 개·보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창호개선, 단열보강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점검프로그램(LH)을 개발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효율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다. 앞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등 관련부처의 정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는 주거복지 서비스이다. 현재는 미진하지만 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학교,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거리 조도강화, 보안업체 및 자율방범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저비용 공동 시큐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2년에 걸쳐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실행력 부족 등으로 간단한 수리지원 정도의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주 센터에서는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주

3)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뉴 하우스 운동’을 보고했다. ‘뉴 하우스 운동’은 다양한 주거수요, 커뮤니티 회복, 에너지 저감 등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고, 주거를 물리적 대상만이 아닌 공간·문화·환경 전반을 아우르며,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양방향 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점과제는 단독주택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해피하우스’,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한 ‘디자인 보금자리’, 현행 뉴타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뉴타운2.0’, 한옥의 보전·확산을 위한 ‘신 한옥 플랜’ 등이 있다.

4) 2009년 9월1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한달의 응모기간을 거쳐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지평가 과정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공모에는 총 9개 광역지자체 12곳이 신청하였고, 그 중에서 주택·거주자 유형, 지자체 지원의지, 주민 참여도,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거주의 지속가능성



▲ [그림 4] 해피하우스 사업 리플릿

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는 2011년 9월부터 자체 예산으로 시범지구 2개소(노송·완산동)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센터별로 지역특성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차별화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 시범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시범사업은 LH의 예산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을 지역기반의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과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단독주택 관리기구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고, 현재 도시재생법, 건축법 등 기타 관련 법률을 검토 중에 있

[표 1] 해피하우스 사업 서비스 항목별 추진실적(건수)

서비스 항목	2010년				2011년				
	서울	대구	전주	계	서울	대구	전주	계	
유지보수	긴급보수(동파, 옥상 누수 등)	0	48	3	51	0	19	0	19
	간단한 수리지원(부속품 교체)	430	329	721	1,480	690	394	621	1,705
	주택 개·보수 컨설팅	23	39	73	135	4	7	0	11
	주택안전점검	0	19	0	19	0	121	0	121
	기타 위생설비시설 보수 등	48	51	129	228	117	6	0	123
	유지보수 기술상담	649	619	868	2,136	922	521	249	1,692
소 계	3,160	1,105	1,794	4,049	1,733	1,068	870	3,671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5	3	5	13	0	0	0	0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센터)	0	63	315	378	22	31	0	5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한전)	71	17	80	168	0	166	0	166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0	0	0	0	0	0	0	0
소 계	3,236	1,188	2,194	4,608	22	197	0	219	
주거복지	주거복지상담 및 자체연계사업 등	0	0	598	598	0	103	0	103
합 계	1,226	1,188	2,792	5,206	1,755	1,368	870	3,993	

자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1년 10월말 기준.

거주의 지속가능성



▲ [그림 5] 두꺼비하우징 시범지구 전경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2) 두꺼비하우징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거주 지원프로그램으로서, 이 사업의 추진 목적과 내용은 앞서 언급한 해피하우스 사업과 유사하다. 노후한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위주의 주택재개발에서 벗어나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의 개·보수와 관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보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이 해피하우스 사업과 다른 것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추진했다는 점이다.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해 공공의 행정력과 민간의 노하우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 자생의 거주 지원프로그램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 은평구청과 비영리단체인 (사)나눔과 미래, (사)녹색연합, (사)환경정의에서는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주)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2010년 12월 설립하였다.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는 다수의 서민층이 지어진지 20~30년이 지난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곳은 주민들이 같은 동네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기존의 주거환경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주요내용은 수익사업으로서 주택 관리와 개·보수, 그리고 공익사업으로서 마을 만들기,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내용 중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주택관리 부분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수리비와는 별도로 월 2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 개·보수는 두꺼비하우징에서 공사 감독을 하여 시공품질을 책임지고, 지역내 보수업체와 협약을 맺어 도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 관리와 에너지효율 진단 서비스를 제공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등과 주택개량자금 대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 이곳에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서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



시범지구 가로



주택 개·보수



주택 에너지효율 진단

▲ [그림 6] 두꺼비하우징 주거실태 및 주거서비스

거주의 지속가능성

[표 2] 두꺼비하우징 사업 주요서비스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주택관리	-문(창) 부속품 : 경첩, 도어클로저, 도어록 보수 등 -양변기 : 주위 백시멘트 간단한 보수, 물내림 버튼 보수·교체 등 -수도 : 수도꼭지 누수시 보수(패킹교환), 세면기 U 트랩 등 부품보수·교체 등 -싱크대 : 문짝 등 경첩 보수·교체 -배수구 : 화장실, 다용도실, 배수구 막힘 수리 -배선기구 : 스위치 고정(교체), 콘센트 고정(교체), 주택내부의 전기선 정리, 연결 -전등부속품 : 센서 등의 센서 불량시 교체 -보일러 : 작동여부 및 가스누출 점검
주거성능 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에너지진단과 효율개선 -노후주택 리모델링 -일반건축물 리모델링과 에너지 성능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조사를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을 자원 발굴 -동네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형 마을관리 -주민의 지역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주거복지	-뉴타운·재개발사업 상담 -은평구 주거약자 주거복지 상담

자료 : 두꺼비하우징 리플렛.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은 미진한 상태이다. 그동안 은평구에서는 두꺼비하우징사업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부결되었다. 앞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근거법령과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맺으면서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단지 수준의 편리하고 저렴한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은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보전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개발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주거환경과 생활공동체를 유지하며 개선하는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간과해왔던 모여 사는 의식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더욱 풍요로운 일상의 삶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가 ‘이웃사촌’이나 ‘우리 동네’와 같은 관념을 약화시킨 부정적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주택관리 사업

을 지역업체에 맡김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거주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위축돼 전·월세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모두 아파트로 건설할 수는 없으며,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보전과 재생’의 개념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주택공급’에서 ‘주택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실현 등을 위한 단독주택지 재생과 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단독주택 거주 지원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의

거주의 지속가능성

필요성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주 지원프로그램이 각 지역의 거주특성과 소득계층에 맞게 조정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가차원의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서민 주거안정과 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 2) 서수정·임강륜(2010), ‘단독주택지 재생을 위한 주택관리 및 정비 지원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3) 서수정·임현성 외(2010), ‘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구’, 국토해양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 4) 손세관(2009),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새로운 진로’, 한국주거학회 2009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5) 이동환(2010),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주거문화 정책방안’, 도시정책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6) 전남일·손세관 외(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들베개
- 7) 홍길표·박용성 외(2010), ‘해피하우스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해양부·공공기관경영연구소
- 8) 해피하우스 <http://happyhouse.city.go.kr/>
- 9) 두꺼비하우징 <http://www.toadhousing.com/>